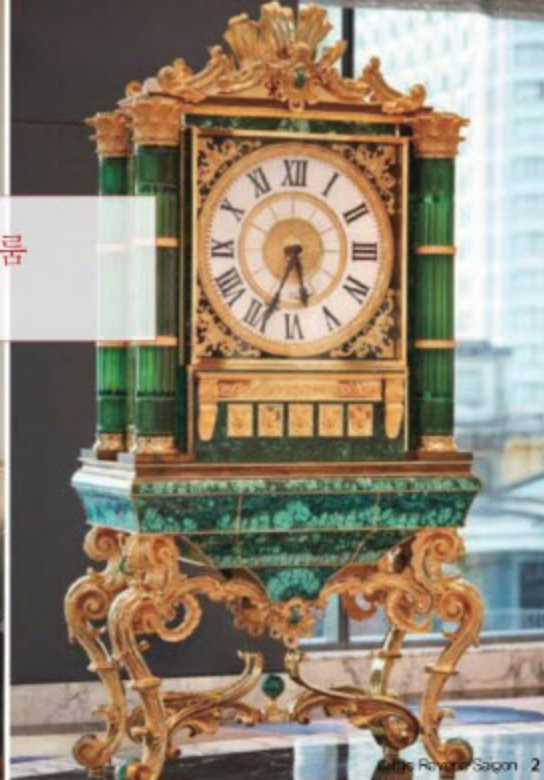


럭셔리를 체험하는 우아한 쇼룸
더 레버리 사이공 글·사진 천소현 기자



The Reverie Saigon

“호텔이 집과 같다면 왜 호텔에 가야 할까요. 그 이상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호텔의 콘셉트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두 개의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호찌민 최고층 호텔의 전경, 넓고 화려한 욕실, 밤이면 벽난로로 변하는(화면이 바뀐다는 뜻이다) TV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텔투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호찌민 타임스퀘어에 우뚝 솟은 39층 주상복합 빌딩의 상층부에 자리한 더 레버리 사이공 호텔은 각 객실마다 예술작품에 견줄 만한 가구들이 자리잡고 있는 호텔이었다. 콜롬보스틸(Colombostile), 지오르제티(Giorgetti), 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 비지오네르(Visionnaire) 등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가구들로 꾸러진 객실들은 때론 클래식하고, 때론 모던하고, 때론 아방가르드하다. 총 286개의 객실은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지는데, 각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기대감으로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였다. 가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한 아이템만 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가구들과의 조화와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고려해 구색을 맞추려면 끝이 없어지는 욕망의 늪이다. 더 레버리 사이공은 그 복잡하고 비싼 로망을 실현해 주는 곳이자, 현실로도 끌어올 수 있는 곳이다. 호텔 빌딩에 입주해 있는 매장에서 지난밤 사용했던 가구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 보통의 호텔들은 가구를 자체 디자인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

다. 가구만큼이나 어메니티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아쿠아 디 파르마(Acqua di Parma) 혹은 에르메스의 목욕용품과 네스프레소 커피, 다만(Dammann) 티백, 매일매일 음료수가 꽉 채워지는 미니바 등은 호텔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400수 혹은 600수의 프레테(Frette) 린넨 안에 담긴 구스다운 침구류, 선택이 6가지나 되는 베개의 쾌적함은 말할 것도 없다. 더 레버리 호텔의 숙박료 역시 호찌민 최고 수준인데 일반실 350~550USD부터, 스위트룸은 800~1만5,000USD부터다. 더 레버리 사이공은 호찌민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지척에 1908년부터 그 자리를 지킨 인민위원회 청사(People's Committee Hall)와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명품숍과 레스토랑, 럭셔리 호텔들을 품고 있는 상업과 유흥의 중심지다. 호텔 앞 광장은 밤이면 데이트와 산책을 나온 인파와 노점상으로 북적이고, 주말이면 다양한 이벤트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반대로 후면 거리는 로컬 커피숍과 부티크 숍, 레스토랑이 숨겨져 있다. 복잡한 구조의 낡은 건물이 속속 트렌디한 바와 카페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베트남 경제 부흥의 축소판이다. 호텔이 입주해 있는 타임스퀘어 빌딩에는 여러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호찌민 최고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R&J에서는 열정이 가득한 이탈리아 셰프가 독창적인 요리를 제공한다. 객실에서 시작된 이탈리아가 이곳에서 완성된다.

더 레버리 사이공
www.thereveriesaiagon.com

1,4 우림의 공전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런 가구를 2호실의 보물 1호는 로비에 있는 발디 시계(Baldi Clock)다 3 스과 2 층으로 이어진 화려한 계단 5 더 레버리 사이공의 아침 뷔페는 음식 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Ho Chin Minh River

사이공 강바람을 맞으며

더 레버리 요트 The Reverie Yacht 글·사진 천소현 기자

더 레버리 사이공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경험은 사이공강까지 이어졌다. 매끈한 요트 더 레버리(The Reverie)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캐비어와 샴페인이 곁들여진 요팅이었다. 영화에서 종종 사치스런 생활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런 몇몇의 순간을 누려 보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웬지 모르게 분주했던 베트남 여행의 종착지인 호찌민시에서 마지막날, 사이공강을 유람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중국에서 발원해 4,000km 이상을 남하해 온 메콩강의 마지막 지류가 사이공강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낮 동안의 사이공강은 실 새 없이 오가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의 풍경이 두드러졌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는 새로운 느낌으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강 둔치의 레스토랑과 노천 주점들도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네온사인과 함께 더욱 뚜렷해졌다. 오랜만에 요트를 탄 흥분이 가라앉고 나자 모두들 조용해졌다. 시원한 강바람과 부드럽게 떨어지는 석양빛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이다. 알싸한 샴페인을 한 잔, 또 한 잔. 90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일주일간의 베트남 여행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것처럼.

1, 2 호찌민강을 시원하게 달리는 더 레버리 요트 3 샴페인과 샴 어플리는 음식들 4 해가 지는 90분이 요트를 타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베트남항공 14번째 에어버스 A350-900

베트남 국영항공사 베트남항공은 지난 4월 베트남항공만의 특별한 컬러가 입혀진 최신에 A350-900 항공기를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응우옌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을 비롯한 베트남 고위급 관료들이 당일 행사에 참석했다. 총 14대의 에어버스 A350-900기종 주문을 마침으로써 베트남항공은 스카이트랙스 인증 5성 항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넓고 쾌적한 기내공간과 풀-플랫 시트, 더 커진 스크린을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 승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트남항공 그룹(베트남항공, 잭스타 퍼시픽, 캄보디아 앙코르 에어 포함)은 내로우 바디(Narrow-Body) 여객기 89대, 와이드 바디(Wide-Body) 여

객기 16대를 포함, 총 105대의 에어버스사 항공기를 운항 중이며, 이 중 88%에 해당하는 86개의 에어버스 항공기가 베트남항공에서 운항되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2015년 7월부터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항공사 중 2번째로 차세대 와이드 바디 에어버스 A350-900 신규 취항 후, 유럽 및 호주, 동남아시아와 베트남 국내선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3만5,000번의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으며 약 9만명의 베트남항공 승객을 운송했다. 베트남항공은 현재 인천-하노이/호찌민 구간에서 A350 기종을 운항 중이며, 오는 7월1일부터 부산-하노이 노선에도 A350-900기종이 적용될 예정이다.

www.vietnamairlines.com

RESTAURANT



홀라당 반하다

홈목 레스토랑 HOME Moc Restaurant

사실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 무리가 정신없이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라든가 길거리 목욕탕 의자에 앉아 보는 쌍국수가 떠올랐다. 하노이에서 첫 끼니를 홈목 레스토랑(HOME Moc Restaurant)에서 해결하기 전까진 말이다. 왜 아무도, 여태껏, 하노이가 이렇게 '힙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던 걸까. 홈목 레스토랑은 바이마우호수(Bay Mau Lake) 공원 옆에 자리한 베트남 해산물 요리 레스토랑이다. 비일시적인 대문을 통과하니, 알록달록 등불과 함께 노란 빌라가 튀어나왔다. 베트남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이 뒤섞인 건물에는 이색적인 목재 기둥이 가득했고, 지리에 얽히니 정갈하게 놓여 있는 우드 식기가 눈에 띄었다. 홈목 레스토랑의 목(Moc)이라는 글자는 나무 목(木) 자를 뜻한다. 맑은 수프를 시작으로 베트남식 커피로 끝까지 시푸드 춘권, 칠리 왕새우, 바나나 잎에 싸 구운 생선 등 베트남 해산물 요리가 끝없이 펼쳐졌다. 눈과 입이 번갈아 즐거우니, 화이트와인까지 꿀꿀꿀꿀 잘만 넘어갔다. 유난히 정겹고도 나무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식탁이었다.

11:00~13:30, 17:00~21:30 스페셜 베트남 세트 메뉴 36만VND hanoi.moc.homevietnameserestaurant.com

사이공의 자존심

베트남 하우스 Vietnam House

베트남 출신으로 호주에서 스타 셰프가 된 루크 응우옌(Luke Nguyen)의 캄백은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과 함께 미식의 기준을 함께 높인 것 같다. '스트리트 푸드 킹'으로도 불리는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거리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 셰프. 그렇게 로컬 음식과 서민 음식에 애정이 깊은 그가 운영하는 베트남 하우스는 1970년에 세워진 오래된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물 안에 자리잡고 있다. 호찌민시에서 정말 맛있는 베트남 요리 한 끼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 4인 가족이라면 1인당 4만5,000원의 예산으로 9가지의 베트남 요리를 차례대로 맛볼 수 있는 디너 세트가 있다. 연어가 들어간 페이퍼롤, 소고기와 연근을 섞은 샐러드, 바나나잎에 싸서 구운 생선 요리 등등 어느 하나 입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타질 듯 배가 부르다면 서도 분짜를 추가하는 패기를 작동시킨 것은 달고, 시고, 짜고, 맵기까지 한 시그니처 칵테일의 위력이었을 것이다.

93-97 Dong Khoi Street vietnamhousehanoi.com

